

최근 주요 의학 잡지(<http://journals.plos.org/plosmedicine/article?id=10.1371/journal.pmed.1002062>)에서 유진벨 재단의 북한 내 다제내성결핵 치료 프로그램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내용을 게재했다. 북한 보건성(MOPH)은 자국의 다제내성결핵 치료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현재 매년 1,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대부분이 여전히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곧 북한 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 중 대부분이 치료는 커녕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성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제내성결핵 치료 프로그램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실험실 진단이 부족한 것이다. 실험실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핵 환자들 중 누가 다제내성결핵에 감염되었는지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건성은 Xpert MTB/RIF(http://www.who.int/tb/publications/Xpert_factsheet.pdf)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Xpert MTB/RIF는 환자의 객담 속에 있는 DNA를 판별하는 새로운 진단방식으로 단시간 안에 세계적인 표준방식이 되었다. 유진벨 재단은 몇 년 전부터 정기 방북 때마다 이 Xpert 기기를 이용해 그 자리에서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진단하고, 당일에 환자가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왔다.

병원과 요양소를 중심으로 한 북한 내 Xpert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매년 15,000 명의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도마다 지형과 인구 밀집도에 따라 여러 대의 기기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또한 기기의 종류가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시설(지역 병원, 결핵 외래환자 전담 부서, 보건소)의 특성 및 역량에 따라 최적화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북한 전역에 대략 50-100 대의 기기가 필요할 것이다.

각각의 Xpert 카트리지는 1 개의 객담 샘플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기에 이 샘플을 넣어 작동하면 2 시간 안에 다제내성결핵 여부를 진단해준다. 카트리지는 모두 일회용이며 사용 즉시 폐기한다. 다제내성결핵 정도가 심한 환자들을 모두 진단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5,000 개의 카트리가 필요하다.

북한 전역에 다제내성결핵 진단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계획이다.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Global Fund for AIDS, TB and Malaria)과 같은 국제적인 후원단체에서 Xpert 네트워크 확대 사업을 지원하여 다제내성결핵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환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경우, 이와 유사한 국제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Xpert 기기의 수출 제한 또한 이 계획을 실행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토록 효과적이면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술을 한국 정부가 지원해주고, 미국 정부가 승인해준다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낼 것이다.



Kwonjune Seung, MD